민가 평면 구성의 분류, 실례 및 기능
(民家 平面 構成의 分類, 實例 및 機能)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 운곡(雲谷)1리(里), 괴실(槐實)마을을 중심으로)

明知大 講師 金 鴻 植

目 次

1. 序
2. 分類 方法
3.平面構成의 實例
4. 機能
5. 結

1. 서(序)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건축사(韓國乾縮史)에 대한 연구는 그 열을 더욱 더해 가고 있고 그 성과 또한 괄목할 만 하다하겠다. 그러나 건축사(建築史)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가(民家)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요원한 단계에 있다. 예를 들면 민가(民家)의 분류방법(分類方法) 문제인데, 여러 학자(學者)들에 의해서 이것이 시도되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몇십 채의 민가(民家)를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어도 수백 채의 민가(民家)를 수집해서 분류하려고 들면 지금까지의 방법(方法)은 금방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또한 민가(民家)의 평면(平面) 구성(構成)을 연구하는데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기능(機能)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물론 그것의 대부분이 우리의 생활(生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재삼 기술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나,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社會)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기술해 두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던 (대한건축학회(大韓建築學會) 1975年 춘계(春季) 학술발표) 민가(民家) 평면구성(平面構成)의 새로운 분류방법(分類方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것에 따른 몇 가지 실례(實例)를 들었으며 그것의 기능(機能)도 기술해 두었다. 기술의 방법(方法)은, 새로운 방법(方法)으로 민가(民家)를 관찰한 것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데만 그쳤고 그것의 해석이나 연구는 다음 기회에 미루었다. 이 글은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 운곡1리(雲谷1里), 괴실(槐實)마을의 민가(民家) 평면(平面)을 모두 조사하므로서 얻어진 결과인데, 마을은 소백산맥(小白山脈)의 조그만 줄기에 해당하는 곳의 산 골짜기

에 자리잡고 있다. 교통(交通)은 북(北)으로 증평(曾坪)에 연결되고 남(南)으로 미원(米院)에 연결되나 편리한 곳은 아닌다. 기후(氣候)는 온화한 편이나 한서(寒暑)의 차(差)가 심하고 강수량은 연 1171㎜로서 수전농업(水田農業)에 좋은 곳이다. 산물(産物)은 수전(水田) 농업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특산물로서 인삼(人蔘)을 많이 재배한다. 이 사실은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랜 전통(傳統)을 가진 것이라 믿어진다. 이러한 특산물의 덕택인지 이 마을은 비교적 부농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분류방법(分類方法)

이 마을에는 총 41호(戶)가 있었는데 하나도 똑같은 평면(平面)을 가진 집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평면구성(平面構成)으로 봐서 크게 4가지 군(群)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것은 다시 몇가지로 세분해 볼 수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가(民家) 평면구성(平面構成)에 있어서 공간(空間)이 분화(分化)되는 과정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대(時代)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 발생한 공간분화(空間分化)→양식(樣式)이라 부름.

둘째, 계층(階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서로 다른 평면 구성 → 형식(形式)이라 부름.

셋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리 분포하는 평면 구성 → 형식(型式)이라 부름.

이때 첫째의 이유로 구분되는 것을 양식(樣式), 둘째의 것을 형식(形式), 그리고 집의 모양이 달라 구분되는 것을 형(型)이라 부른다면, 크게는 중세양식(中世樣式)과 근세양식(近世樣式)으로 구별되고 다음은 안채형식(形式), 사랑채형식(形式) 및 바깥마당 형식(形式)으로 나뉘며 작게는 1자형(字型)과 곱패형(型)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역(地域)에 관계되는 형식(型式)은 조사대상이 동일(同一) 지역이므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근세양식(近世樣式)은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집들이([그림 1] 참조) 이에 속하며, 그것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 전통적(傳統的)인 규범(規範)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이것의 평면 구성은 대단히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계층간의 구분이 명확히 되고 있지 않고 모두 같은 유형(類型)으로 짓고 있다. 이것은 원형(原型)은 안채형식(形式)의 4간(間) 일자(一字) 또는 퇴사랑형(型)인 듯 하나, 사랑과 웃방 사이에 자주 끼이는 대청은 사랑채 또는 바깥마당 형식(形式)의 곱패형(型) 집에서만 볼수 있는 것으로 모든 형식(形式)이 혼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채가 분포하고 있어서 이 마을의 1/3이 이 양식(樣式)으로 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양식(中世樣式)은 최소한 해방 전(前)에 지어진 것으로 고래(古來)로 전래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건축된 집을 말한다. 이 마을에는 이 양식(樣式)에 속하는 것이 26채가 있어서 전체의 2/3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아직도 이 마을의 건축 양식(樣式)은 전시대(前時代) 양식(樣式)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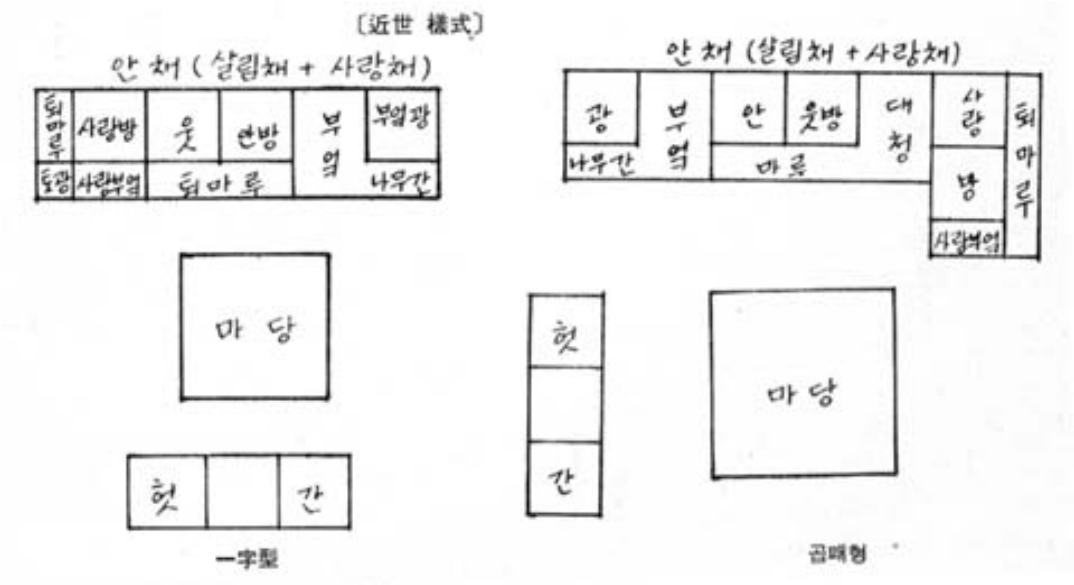
이것은 그것의 평면 구성(平面 構成)이 다양하므로 해서 다음 방법에 의해서 다시 세분할 수가 있었다.

첫째, 바깥마당의 유무(有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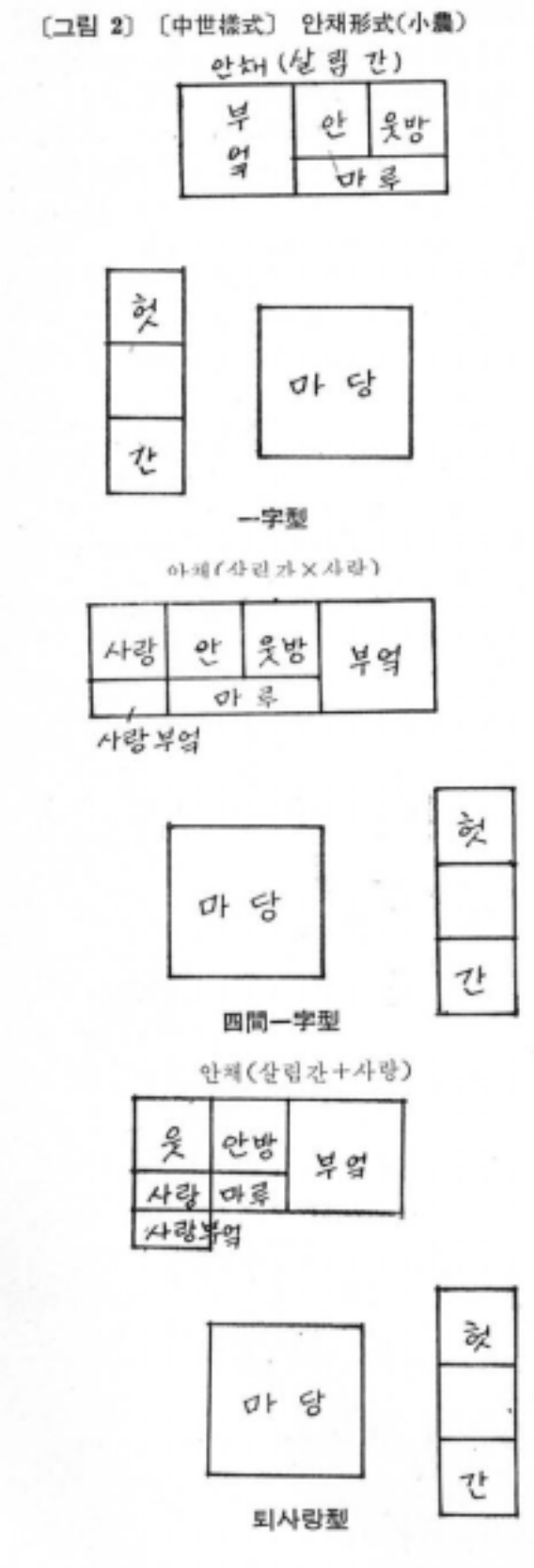
둘째, 사랑채의 유무(有無)

셋째, 집의 모양 - 일자형(一字型), 곱패형(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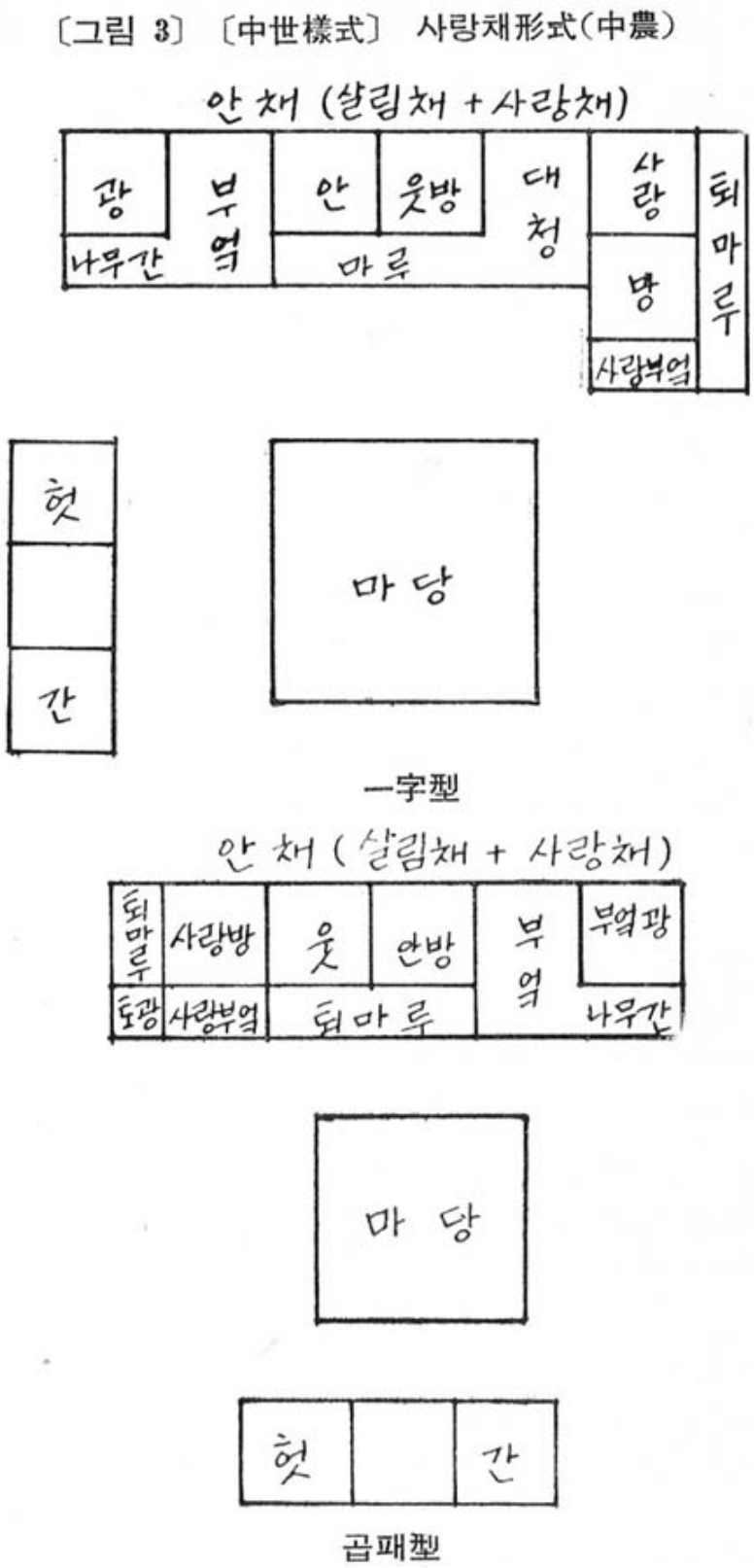
넷째, 안채의 평면구성(平面構成) - (3간(間)) 일자형(一字型), 4간(간) 일자형(一字型), 퇴사랑 일자형(一字型)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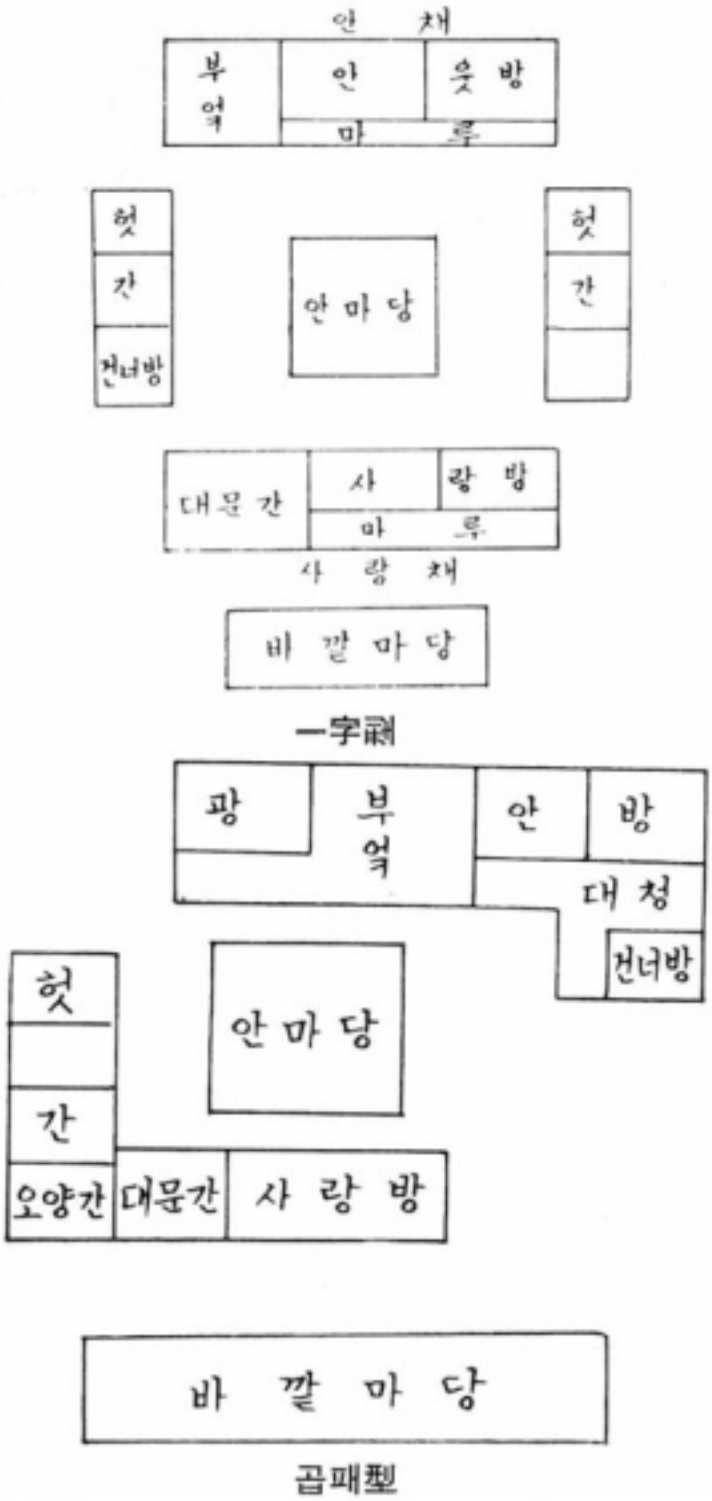


〔그림 2〕 〔중세양식(中世樣式)〕 안채형식(形式)(소농(小農))



〔그림 3〕 〔중세양식(中世樣式)〕 사랑채형식(形式)(중농(中農))

〔그림 4〕 中世樣式 바깥마당形式(大農)



〔그림 4〕 〔중세양식(中世樣式)〕 바깥마당형식(形式)(대농(大農))

이러한 기준에 의해 관찰했을 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층별로 나눠 보는 결과가 된다.

[표(表) 1]

시대별(時代別) / 계층별(階層別)	중세양식(中世樣式)	근세양식(近世樣式)
안채 형식(形式) (소농(小農))	일자형(一字型) 4채 퇴사랑형(型) 9채 사간일자형(四間一字型) 3채 계 16채	
사랑채 형식(形式) (중농(中農))	일자형(一字型) 3채 곱패형(型) 1채 계 4채	일자형(一字型) 7채 곱패형(形) 6채 계 13채 ※예외 2채
바깥마당 형식(形式) (대농(大農))	일자형(一字型) 4채 곱패형(形) 2채 계 6채	총 41채

안채 형식(形式)의 집은 (〔그림 2〕 참조) 안채에만 모든 살림방(사랑방을 포함해서)이 있는 것으로 가장 가난한 소농계층(小農階層)의 집이다. 이것은 대부분 쌍채로 존재하지만 가끔 외채나 세채로 구성되기도 하며, 안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헛간이나 변소 등의 부속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특히 규모가 작은 집이 많으며 구조 기술에 있어서도 규모가 작은 집이 많으며 구조 기술에 있어서도 토담집이나 상투꽂이 맞춤을 쓰는 등, 원시적(原始的) 수법을 많이 쓰고 있으며, 주간(主間)도 일정치 않은 게 보통이다. 이것은 이 마을에 16채가 현존하므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9%)

사랑채형식(形式)의 집은(〔그림 3〕 참조) 살림간으로 쓰는 안채와는 별도로 손님접대와 남정네들의 독서(讀書)를 위한 공간으로 사랑채를 별도로 둔 집을 말한다(실제 안채형식(形式)에서의 사랑방은 거의가 광으로 이용되는데 비해 이쪽은 문자 그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대부분 세채로 구성되지만 쌍채의 집도 있는데, 안채는 모두 살림간으로 쓰고 사랑채는 사랑방과 헛간으로 쓰거나 아니면 사랑방과 그에 딸린 사랑부엌(또는 대문간)으로만 써서 헛간채를 따로 갖기도 하는 형태(形態)이다. 이것은 중농계층(中農階層)에서 많이 이용하며 전통적(傳統的) 규범(規範)에 의해서 건축한다. 주간(柱間)도 비교적 일정하고 집의 규모도 비교적 크다. 이 형식(形式)의 집은 이 마을에 4채가 있으며 가장 적은 유형(類型)이다. 바깥마당형식(形式)의 집은 (〔그림 4〕 참조)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 바깥마당을 따로 갖는 집인데, 대농계층(大農階層)의 집이 이에 속하고 집의 규모도 가장 크다. 이런 집은 안채에도 안방 외에 부엌광과 건너방이 있게 마련이고 사랑채에는 사랑방과 대문간 기타 헛간이 함께 붙어 있

는게 보통이다. 또한 바깥마당에는 통상 헛간채나 축사(畜舍)가 따로 마련된다. 이런 집은 네모기둥에 뜰팡(기단(基壇))이 높고 주간(柱間)이 꽤 길며 맞춤은 사괘 맞춤이 많이 쓰인다. 특히 창(窓)이나 문(門)은 세공이 잘된 것들을 쓰고 있다. 즉 귀족(貴族)들의 집이다. 이것은 6채가 있는데 사랑채형식(形式)의 집과 합치더라도 다른 것보다 적고 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實例)와 그것의 기능(機能)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다만 근래(近來)에 형성되어진 근세양식(近世樣式)은 아직도 그것이 형성 단계에 있고 지역적으로도 지나치게 자유스러워서 좀 더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기타 중세양식(中世樣式)만 가지로 안채, 사랑채 및 바깥마당형식(形式)으로 나누어 그 대표될 만한 것만 골라 기술한다.

3. 평면구성(平面構成)의 실례(實例)

안채형식(形式)은 살림채가 되는 안채와 앞마당 및 몇 개의 부속사(附屬舍)로 구성된 집을 말하며 보통 살림채가 5간(間) 미만(未滿)이다. 그 실례(實例)로서 운곡리(雲谷里) 1구(區) 150, 김재욱씨 댁을 든다. ([그림 5] 참조) 이 집은 안채가 서남향(西南向)해 있고, 그 앞에 앞마당이 놓이며 출입구(出入口)는 안채 맞은편에 사립문 없이 설치되었다. 안채는 일자형(一字型)인데 삼간전퇴(三間前褪)집으로서, 오른쪽에 부엌을 설치하고 중앙에 안방을 놓으며 왼편에는 웃방을 배치한다.

김재욱씨댁 안채정면(正面)

中世樣式 안채形式 퇴사랑型

[그림 5]

중세양식(中世樣式) 안채형식(形式) 퇴사랑형(型)
김재욱씨 댁(운곡리 1구 150)

부엌은 한 간(間) 크기에 전퇴(前褪)를 개방하고 앞과 오른쪽을 덧 달아서 크게 쓰며, 안방과 웃방은 각각 한칸이다. (여기서 한 간(間)의 길이는 대략 2.6m이다) 웃방 앞의 전퇴(前褪)에는 사랑방을 만들었는데 반간(半間) 크기이며, 사랑방 앞은 다시 지붕만을 덧달아서 사랑부엌을 만들었다.

부엌의 오른쪽 1간(間)거리에는 한칸 크기의 안변소가 있으며 그 앞에는 짚가리가 설치된다. 마당 오른쪽 앞에는 3간(間) 크기의 헛간이 만들어지며 전퇴(前褪)가 없는 맞거리(세마루)집인데, 오른쪽 두칸은 헛간이고 왼쪽은 외양간이다. 사립문 옆에는 두칸 크기로 사랑변소와 잿간이 배치된다.

집안의 왼쪽 옆에는 커다란 텃밭이 만들어지며 안채 뒤에는 딸기밭과 왼쪽에 장독대 및 김치광이 놓여진다. 집 주위에는 감나무 5그루와 은행나무 한그루가 심어져 있다.

사랑채형식(形式)은 살림채가 되는 안채와 사랑방이 있는 사랑채 및 부속사(附屬舍)로 구성된 집을 말하며, 보통 살림채가 5간(間) 이상(以上) 10간(間) 미만(未滿)이다. 그 실례로서 운곡리(雲谷里) 1구(區) 118, 김재록씨 댁을 ([그림 6] 참조) 든다. 집의 구성은 앞마당 중심으로 서남향(西南向)하여 곱패집으로 안채가 놓이고 그 맞은편 앞에 일자(一字)집으로 사랑채가 배치된다. 안채는 곱패집으로 5간(間) 전퇴(前褪)집인데 오른쪽 앞에 부엌을 설치하고 그 뒤에 안방을 놓으며 안방 뒤에는 웃방을 배치한다. 부엌은 약간 큰 한칸 크기이고 부엌 앞은 반칸씩 좌우에 나무간과 부엌광을 붙였으며, 안방과 웃방은 각각 한칸 크기이다. 이때도 일간(一間) 길이는 대략 2.6m이다. 웃방에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져서 한칸 크기의 대청을 만들고 대청 뒤에는 반칸 크기로 고방을 설치하며, 대청과 고방 옆에는 한칸 크기의 건넌방을 배치한다. 건넌방 앞퇴에는 토광을

만들며 건넌방 왼쪽 옆 퇴에는 토방을 설치한다.

中世樣式 사랑채形式 곱패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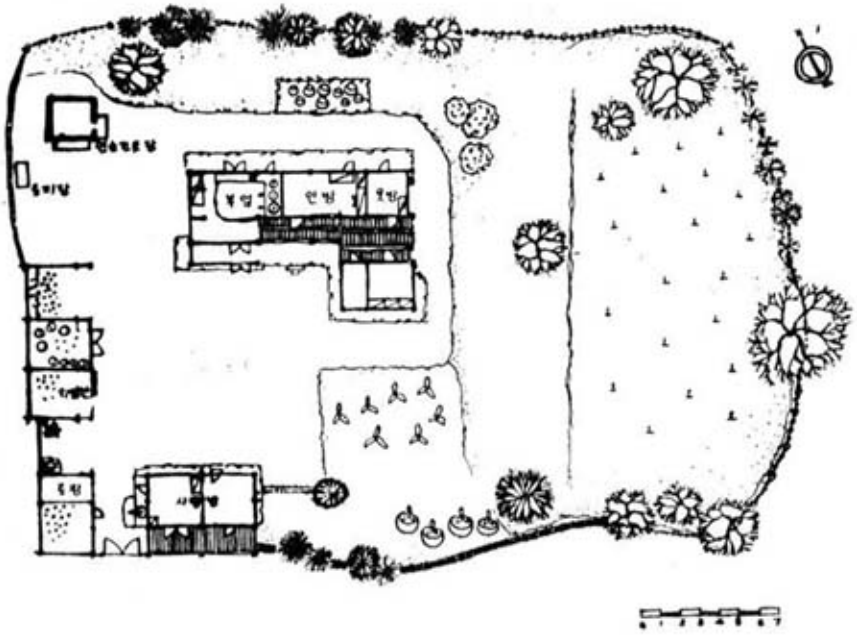
[그림 6]

중세양식(中世樣式) 사랑채형식(形式) 곱패형(型)
김재록씨 댁(운곡리 1구 170)

사랑채는 일자형(一字型)으로 3간(間) 전퇴(前褪)집인데 왼쪽에 대문간을 만들고 중앙에 사랑아랫방을 놓으며 왼편에는 사랑웃방을 배치한다. 대문간은 사랑부엌을 겸하고 있고 한칸 반 크기이며, 사랑아랫방과 웃방은 각각 한칸 크기이다. 방 앞 전퇴(前褪)에는 툇마루를 설치했다. 사랑채 오른쪽 옆에는 다시 한칸 반 크기의 부속사가 있고, 여기에는 한 칸 크기의 외양간과 그 옆의 반간(半間)에 변소를 붙여지었다. 안채 부엌 옆 뒤안에는 장독대가 설치되어지며 텃밭은 없고 집 주위에는 엄나무가 심어져 있다.

바깥마당형식(形式)은 생활공간이 되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안채, 사랑채 및 부속사와 사랑채 앞의 농작업을 하기 위한 바깥마당 공간으로 구성된 집을 말하며 보통 10간(間) 이상(以上)이다. 그 실례(實例)로서 운곡리(雲谷里) 1구(區) 124-2, 김태영씨 택을 든다.([그림 7] 참조) 안채는 앞마당을 중심으로 남향(南向)하여 곱패집으로 배치되고 맞은편 앞에 구자(口字) 형식을 이루면서 역시 곱패집인 사랑채가 있다. 안채는 곱패집으로 5간(間) 전퇴(前褪)집이며 평면의 간살이는 김재록씨댁과 같은데 좌우(左右)가 바뀐 묘양이다. 부엌은 1.5간(間)×1.5간(間) 크기로서 맨 왼쪽 끝에 배치되고 부엌 오른쪽 옆에는 안방과 웃방이 각각 한칸반(半) 및 1간(間) 크기로 설치된다. 웃방 앞에서 ㄱ자(字)로 꺾어져서 대청이 한칸반(半) 크기로 만들어지며 안방 앞고 부엌 일부 앞

전퇴(前褪)에는 툇마루가 놓여진다. 대청 앞에는 건넌방이 한 칸 크기로 배치되고 그 옆에 곁들여서 창고로 쓰고 있는 또 하나의 건넌방을 붙였다.



[그림 7]

중세양식(中世樣式) 바깥마당형식(形式) 곱패형(型)
김태영씨댁(운곡리 1구 124-2호)

김태영씨댁 사랑채와 바깥마당 전경(全景)

사랑채 역시 곱패형(型)으로 4간(間) 전퇴(前褪) + 4간(間) 맞거리(세마루)집이다. 전면(前面) 중앙에는 한칸 반(半) 크기로 대문간을 설치하고 여기에 사랑부엌을 겸한다. 그 오른쪽 옆에는 각각 한칸 크기의 사랑아랫방과 사랑 웃방을 차례로 배치하고, 사랑방 앞 전퇴(前褪)에는 툇마루를 놓았다. 대문간 왼쪽 옆에는 한 칸 크기로 헛간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는 반간(半間) 크기로 토광이 설치되며 여기서 ㄱ자(字)로 구부러져서 한칸 크기의 나무를 쌓아 놓는 헛간이 배치된다. 그 뒤로 계속 붙여서 각각 한칸 크기의 외양간과 광 및 헛간이 놓이며, 헛간 뒤(왼쪽 옆)에는 변소가 설치된다.

안채의 부엌과 사랑채의 헛간 사이 뒤에는 개인용(個人用) 연초 건조장이 있고 그것 뒤에는 토끼장이 만들어져 있다. 안채 뒤의 뒤안에는 장독대가 배치되고 안채 오른족 옆에는 텃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화분들을 갖다 놓고 화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집 주변에는 배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화원 옆 안채 쪽에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 앞에는 바깥마당이 배치되어 있는데 입구에 우물이 하나 있을 뿐 별다른 시설은 없다. 다른 집에서는 바깥마당 주변에 헛간이나 축사(畜舍)가 있기 마련이나 이 집은 연초와 화초재배 만을 주업으로 하는 이유로 농작업 때 타작용으로 쓰이는 바깥마당은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4. 기능(機能)

주택에서의 주생활(住生活) 기능(機能)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이 지방(地方)의 것을 기술했으므로 다른 지방과 다를 수도 있다.)

먼저 취침(就寢) 관계로, 잠자리는 안방의 경우 부부(夫婦) 및 어린애와 나이 어린 딸 등이 함께 기거하고 웃방은 나이 든 딸이나 아들이 쓰며 사랑방은 창고로 이용하던가 아니면 장성한 아들이 사용한다. 이것은 여름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바뀌지 않는다. 야간(夜間)의 변소(便所) 사용은, 안방의 경우 보통 요강을 써서 소변은 요강을 이용하지만 대변만은 변소를 사용한다. 사랑방에서는 통상 요강을 사용하지 않고 변소를 이용하는데 예외인 경우도 있다. 잠을 잘 때 머리는 웃목 쪽에 두고 발은 아랫목에 두는 게 보통이다.

일상적(日常的) 접객(接客)으로, 사랑방에서는 남자 손님을 맞으며 안방에서는 여자 손님을 맞는다. 대접은 대부분 식사 제공으로 하고, 남자 손님인 경우는 술 대접을 하기도 한다. 특별히 중요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돈인데 이런 분이 오면 닭을 잡아 대접하기도 한다. 역시 상석(上席)은 안방이나 사랑방을 막론하고 아랫목이다. 농번기(農繁期)때는 보통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며, 자주 오는 손님으로는 동리 주민들로서 저녁을 먹고 나서 놀러온다.

비일상적(非日常的) 접객(接客)으로, 관례(冠禮)는 안방에서 치르는데 요즘은 지내지 않고 혼례(婚禮)는 마당 중앙에서 지내며 요즘은 예식장(마을 회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상례(喪禮)는 안방에서 지내는데 아랫목에 관(棺)을 안치하고 제사상은 건넌방에 차려 놓으며, 초상날은 친지와 상제들이 방을 비우지 않는다. 제사(祭祀) 역시 안방에서 지내는데 아랫목에 상을 차리고, 대청이 있는 집에서는 대청 동쪽에 상을 놓는다.

가족들의 단란(團欒)은 저녁을 먹고 나서 가지며, 안방에 온 가족이 모여 라디오를 듣거나 이야기(농사 이야기나 잡담)를 하면서 논다. 또한 장성한 아들이나 집주인은 동리 친지집에 놀러 가기도 한다.

재봉(裁縫)은 주부의 임무이며 보통 낮에 안방에서 의류를 손질한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는 요즘에는 밤에도 바느질을 하며, 보통 손바느질에 의하고 가끔 재봉틀을 사용하기도 한다. 바느질 하는 위치는 안방뒷문 앞이다. 이곳은 사람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도 밝기 때문이다. 농한기(農閑期) 때에는 특히 그 동안 밀린 헌 옷가지를 기우는데 소일한다.

식사(食事)는 안방에서 하며 농번기(農繁期) 때인 경우 점심은 들이나 마루에서 한다. 샛밥(間食)은 보통 하지 않는데 농번기(農繁期) 때에만 들에서 밥이나 국수를 먹으며 그냥 땅 바닥에 앉아서 쉬는게 보통이다. 안방에서 식사(食事)를 할 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고 주부(主婦)가 밥상을 돌보며 역시 웃어른은 아랫목에 앉는다.

자녀(子女)의 교육(敎育)은, 부자집이 아닌 경우 공부방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으나 공부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 대부분 책 읽기에 좋은 창문가에 책상을 놓고 사용하며 책은 책꽂이에 꽂는다.

취사(炊事)는 주부가 담당하고 안방 부뚜막을 이용한다. 상수(上水)는 대개 집안에 있는 우물이나 펌프를 이용하고 하수(下水)는 부엌 근처의 자연적인 도랑을 이용한다. 도랑은 대개 개울과 연결되지 않고 집의 대지 밖에 나가서 땅 속에 스며드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수대는 개수물 그릇을 부뚜막에 올려 놓고 대신하며, 식기(食器)는 찬장을 이용하여 보관한다. 식품(食品) 역시 찬장에 넣어 보관하고, 곡물(穀物)은 장기적으로 토광을 이용하며 단기적으로는 광 안에 쌀독을 놓고 사용한다. 부뚜막은 높이 45㎝, 폭 60㎝ 정도의 토단(土壇)에 시멘트 회를 발라 만들었다. 연료(燃料)는 솔가지나 보리짚, 풀 등을 쓰고 헛간이나 부엌 옆의 나뭇간을 이용해서 쌓아놓는다. 매입(買入)하는 연료는 없고 모두 본인이 자작(自作)으로 채취한다. 옷은 보통 안방에서 아침에 갈아 입고 세탁은 개울에서 하며 안마당에 줄을 매고 빨래를 널어 놓는다. 목욕은 저녁에 개울에서 하고 여름에는 자주, 겨울에는 月 1회 정도로 한다. 이불은 웃방의 웃목에 개어 놓고 의복(衣服)은 농에 넣어 두며 일상복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벗어서 벽에 걸어둔다. 작업복(作業服)은 마루에 걸어 놓으며 각자 쓰는 방에서 갈아 입고 작업장에 나간다.

건물들은 건축 연대가 보통 50年 이상이 되는 낡은 것들이고 대부분 집의 일부를 개량(改良)하기 보다는 신축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로는 집이 낡고, 집터가 낮아 배수가 안 되거나 집이 낮아 통풍이 잘 안 되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5. 결(結)

민가(民家)를 연구(硏究)하는데 있어서 자료(資料)의 수집은, 조사대상을 불규칙하게 한 마을에서 몇 채씩 선택하므로서 조사자의 선입견이 선책 과정에서 미리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어느 한 마을 전체를 조건없이 조사하므로서 민가(民家)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민가(民家)의 평면(平面)을 그 구성상(構成上) 비슷한 것끼리 모아 보면 새로운 분류방법(分類方法)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대별(時代別)(양식(樣式)), 계층별(階層別)(형식(形式)), 지역별(地域別)(형식(型式)) 분류방법(分類方法)이다. 따라서 해방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평면(平面)을 근대양식(近代樣式)이라 부르고 이것에 대한 고래(古來)의 건축양식을 중세양식(中世樣式)이라 부를 때, 후자는 전자와 달라서 다시 계층별(階層別)로 나눌 수 있게 된다. 바깥 마당은 농작업 만을 위한 공간으로 대농(大農)들이 소유하는 공간이고 사랑채는 규모가 큰 집에서만 갖는 중

농(中農) 이상의 공간이며 안채와 그에 딸린 부속사로만 구성된 집을 가진 계층(階層)은 소농(小農)에 속한다. 이것들을 각각 바깥마당형식(形式), 사랑채형식(形式) 및 안채형식(形式)이라 부르며, 여기서는 지역별(地域別) 구분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型式)은 분류하지 않고 집의 형태에 따라서 일자형(一字型)과 곱패형(型)으로 각각 나누어 본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채형식(形式)은 살림채가 되는 안채와 앞마당 및 몇 개의 부속사(附屬舍)로 구성된 집을 말하고, 사랑채형식(形式)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살림간이 있는 안채와 사랑이 있는 사랑채 및 부속사(附屬舍)로 배치된 집을 말하며, 바깥마당형식(形式)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건물군과 사랑채 앞의 바깥마당 및 부속사로 구성된 집을 말한다.

안방은 부부(夫婦)의 침실이고 식구들의 식사공간(食事空間)이 된다. 또한 재봉공간(裁縫空間)으로 이용되고 때에 따라서는 여자 손님을 위한 접객공간으로도 쓰인다. 웃방과 건넌방은 서로 같은 용도(用途)로 쓰이는데 장성한 자식(子息)이 쓰며 공부방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기거하지 않고 창고로 쓰기도 한다. 사랑방은 남자손님을 접대하는 곳이고 집의 남자(男子) 주인이나 장성한 아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쓰기도 한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안방에서 지내고, 혼례(婚禮)는 마당에서 차리는데 요즘은 예식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가(民家)의 평면구성(平面構成)을 새로운 분류방법(分類方法)에 의해서 분류하고 설명함으로써 민가(民家)를 새롭게 관찰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얻는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으나 이러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이렇게 해야 만이 천차만별한 모든 민가(民家)를 분류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분류만이 현상의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하리라고 믿어진다.

끝으로 이 글을 쓰도록 협찬해 주신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김정기박사(金正基博士)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이다.